

# 정기 이사회 회의록

- 개최일시 : 2017년 2월 27일(월) 19:30-21:00
- 개최장소 : 켄싱턴호텔 여의도 소호실
- 총이사수 : 6명
- 출석이사 : 이경준 이사, 이태웅 이사, 윤형주 이사, 한정국 이사, 박영희 이사 이상 5명
- 출석감사 : 이천화 감사 이상 1명

## □ 개회선언

▶ 이경준 이사장 : 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사 5명이 참석하여 주셨으므로 2017년도 정기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정기 이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 1호 의안> 이랜드재단 감사 보고의 건

▶ 이경준 이사장 : 먼저 법인의 감사이신 이천화 감사께서 이랜드재단의 2016년 결산에 대해 감사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 이천화 감사 : 2017년 2월 2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10조 1항에 의거 사무국에서 제출한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보고서 및 수지계산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기 재무제표는 재단법인 이랜드재단의 2016년 12월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회계기간의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재단법인 이랜드재단의 정관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비영리기관의 회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문제없이 작성되었고 기타 중요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말씀 드릴 부분은 향후 정관 개정을 해서 보건복지부를 통해 지식경제부의 지정기부금 단체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인에서 출자를 받아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랜드클리닉은 매년 수익을 올리며 이랜드재단에서 출연하였던 출연금도 약정된 금액을 정확히 상환하여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이는 원장님을 비롯한 이랜드클리닉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고 수고한 결과인 것 같다는 내용과 함께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준 이사장 :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신성회계법인을 통해 외부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제 2호 의안> 이랜드재단 2016년 결산·사업결과 및 2017년 예산·사업계획(안) 심의 건

▶ 이경준 이사장 : 다음은 정영일 국장께서 재단의 2016년 결산 및 사업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일 국장 : 2016년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랜드재단 2016년 정기이사회 자료집의 12페이지 결산서를 보시면 2016년도 수입액은 5,360,879,908원, 결산액은 2,128,179,234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 중 이랜드클리닉으로부터 3억5천만원의 출자금을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세입은 그룹기부금 및 비지정후원금이 19억원 정도 되고, 전기이월금이 27억, 기부사이트를 통해서 이랜드재단 쪽으로 들어오는 기부금이 1억1천만원, 지정후원금 2억2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급여 우수리인 이삭줍기로 기부하는 금액이 8천만원 정도 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가장 대표사업인 인큐베이팅사업은 약 18억 정도 위기가정지원사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장학사업은 2억 5천만원이며 리빌딩을 하여 작년대비 늘어난 수치이며 향후 장학사업의 비중을 더욱 늘리고 활성화 시킬 예정입니다.

▶ 이경준 이사장 : 2017년 예산 및 사업계획은 지난 번 임시이사회에서 준예산으로 결의되었지만 정기이사회에서 변경된 본예산으로 보고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7년 본예산 및 사업계획에 대해 정영일 국장께서 계속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영일 국장 : 이사회 자료집 26페이지 이랜드재단의 예산서를 보시면 2017년 본예산은 7,253,701천원입니다. 2017년도는 그룹기부금으로 30억, 기부사이트 후원금 2억, 지정후원금이 약 5억원 정도, 직원들의 이삭줍기도 작년처럼 7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월액이 32억원 정도입니다. 세출액은 이랜드재단의 대표사업인 인큐베이팅 예산이 21억원 정도이며 장학사업은 약 6억3천만원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사업준비금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약 40억원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 한정국 이사 : 재단의 R & D 기능이나 모니터링 기능을 위한 인력충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실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며 모니터링을 잘해야 진행 중인 사업을 잘 볼 수 있고 업그레이드 됩니다. 또한 인력 부분은 사외이사처럼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들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이태용 이사 : 재단이 하는 사업의 수준을 보았을 때 인력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랜드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의 시점에서 수혜자 및 혜택을 받는 대상자만 생각하면 안 되고 직원들 또한 여유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내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영일 국장 : 네 이사님, 재단이 작년에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별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고 일정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인력문제는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정국 이사 : 장학 사업과 관련하여 재단에서 한국형 국제학교를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떤가요? 해외에 나가보면 선교사 중에서 이런 부분에서 성공하는 분이 있고 많은 기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경준 이사장 : 선교부분은 아시안미션(AM)에서 지원을 담당하고 우리 재단은 복지부분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정영일 국장 : 덧붙여 말씀드리면 재단은 이랜드그룹의 해외법인이 진출한 나라의 지원을 맡고 그 외의 지역은 아시안미션(AM)에서 담당하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강준호 원장 : 올해는 클리닉과 운영과 관련하여 건강관리협회(용두동)나 하나로 의료재단과 같은 곳을 벤치마킹하려고 하는데 실무자선에서는 시설을 잘 오픈 하지 않아 어려움을 있습니다.

▶ 윤형주 이사 : 경쟁 업체이기 때문에 실무자들 선에서는 보여주기가 어려울 것 같고 재단 이사장이나 책임자분들과 소통하여 주선을 해야 하는데 내가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경쟁자로 느끼지 않고 자신들의 것을 자랑하고 싶게 만드는 전략으로 기회가 된다면 벤치마킹으로 인해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개선하는 쪽으로 진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강준호 원장 : 예, 이사님 조언주심에 감사드리고 좀 더 개선하고 검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해보겠습니다.

▶ 이경준 이사장 : 그럼 이랜드재단 2016년 결산·사업결과 및 2017년 예산·사업계획(안) 심의 건에 대한 본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후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박영희 이사 : 동의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박영희 이사께서 동의해주셨습니다. 재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이사 전원 : 네. 재청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의안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 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본 건 '이랜드재단 2016년 결산·사업결과 및 2017년 예산·사업계획(안) 심의 건'이 결의되었습니다.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진행과 결과를 사무국에 위임합니다.

▶ 이경준 이사장 : 이상으로 본 이사회의 안건이 적합하게 결의되었음을 알리고, 결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과는 사무국에 위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 정기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준 이사장은 심의한 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이의 없이 결의되었음을 확인한 후 이를 참석이사들에게 알리고, 결의된 안에 대해 구체적인 처리하는 사항은 사무국에 위임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다.

폐회시각 21시 00분

2017년 2월 27일

재단법인 이랜드재단

이사장 이 경 춘 (인)



이 사 이 태 응 (인)



이 사 윤 형 주 (인)



이 사 한 정 국 (인)



이 사 박 영 희 (인)



감 사 이 천 화 (인)

